

다국적 담배기업에 대항하는 세계적연대와 금연운동

편집부

제3세계에 엄청난 질병과 사망의 재앙을 초래할 다국적 담배기업의 무차별적 시장공략과 부도덕한 미국의 무역정책에 대항하기 위하여 제7차 담배와 건강 세계대회는 금연운동을 범세계적연대와 계획을 승인하고 이에 앞장선 미국암협회가 제창한 각국의 금연운동통신망 구축계획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담배상인의 목표물이된 제3세계

1990년 4월 1일부터 5일사이 서부호주 퍼스(Perth)에서 개최된 제7차 담배와 건강 세계대회의 주요 테마중의 하나는 제3세계에 있어서의 담배문제 해결의 필요성이었다. 이는 실로 21세기에 가서는 엄청난 질병과 사망의 재앙을 초래할 것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이제야말로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금년도 미국암협회는 전세계 금연운동 지도자들의 모임을 주최하였다.

함께 이들은 다국적 담배기업들의 공격에 대항할 세계적 대책을 구상하였다.

분노와 격분, 또는 수치를 주는 것으로 다국적 담배기업이나 미행정부의 부도덕한 무역정책을 자제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제3세계는 중독적이고 치명적인 약물의 밀매상에 의해 희생의 목표물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 제3차대전의 선전포고나 거의 다를 바 없다고 미국암협회의 부회장이 윌리엄 티핑 박사가 제7차 담배와 건강 세계대회에서 말했다.

“이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 미국암협회는 담배전쟁에서의 일군의 베테랑들의 예비모임을 소집하였다. 우리는 지난 1월 수도 워싱턴 근처에서 모였다. 그리고 함께 3일간의 집중적인 토론끝에 이번 세계대회에서 검토될 세계적인 계획을 구상해냈다.

“이번 대회기간 동안 드러난 문제점들을 가능한한 여러나라 말로 부르짖을 계획이다. 이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행동을 시작하기만 한다면 세계 공중보건문제상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된 것이다.”고 티핑 박사는 말했다.

“계획의 첫번째이자 가장 일차적인 목표는 세계의 가능한 모든 로비활동을

총동원하여 미국내의 분개한 개인 및 단체들과 그와 연결된 외국의 개인 및 단체들의 힘과 합하여 미국의 무역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국제여론을 조성하는 것이다.

생명을 댓가로 한 무역

“이러한 목적을 성취해내기 위해 우리가 추천한 일련의 행동이 소위 “생명을 댓가로 한 무역” 운동이다.

“태국의 경우가 우리가 싸우는 최전선이다. 그리고 세계대회는 이미 행동을 시작했다. 우리는 미국담배를 태국 국민에게 강요하려는 미통상대표부의 압력에 저항하기 위해 일종의 연합된 행동이 필요하다.”

“계획은 또한 일련의 부가적인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미국은 물론 다른 어떤 나라의 정부도 다시는 무역전쟁에서 사람이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이고도

치밀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다.

담배수출과 관련된 문제에 도전하는 것은 좋은 시작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정부기관이건 비정부기관이건 간에 국제적인 기관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총집결하여 담배가 제3세계로 침투해 들어가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한다. 세계적인 계획의 두번째 부분은 바로 이를 위한 전략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것은 UN을 끌어들이고 세계보건기구를 뒷받침하여 국제개발기구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담배대신 건전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나 똑 같이 중요하게 우리는 담배로 인해 야기되는 건강위험을 새로이 인식하기 시작한 국가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효과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따라서 세계적인 계획의 세번째 부분은 담배기업들의 목표가 되고 있는 국가들 스스로 기업들의 압력에 저항할



▲ 미국 금연포스터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와주고 그 역량을 키워주는데 필요한 광범위한 대책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러한 운동의 성공에는 공동 노력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세계적인 통신망 연결

이 중요한 공동노력은 항흡연운동가들에게 이전 어느때 보다도 훌륭히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도구에 의해 촉진될 것이다. 이 새로운 도구가 곧 세계적 연결망—세계적인 계획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통신연락망이다.

“세계적 연결망은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체제로 세계 도처에서 활동하고 있는 금연운동가들이 즉시 전자적 수단을 이용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라고 티핑 박사는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이미 세계적 연결망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있었다. 이는 결코 호주에서만 있는 무언이 아니다. 다음번 부에노스 아이레스 세계대회때는 내가 예전하건데 그동안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연락망이 없이 살 수 있었는지 의아해 하게 될 것이다.

“이 전체 세계적인 계획의 기초가 되고 있는 한 가지 원칙은 바로 우리가 단결하지 않고 홀로 행동한다면 질병과 죽음의 세계적인 거래를 중지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세계대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도움과 협조가 있어야만 우리는 그들의 시장공략을 끝장낼 수가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태국은 항흡연운동이 이제 막 싹트고 있는 나라로 우리의 공동노력에 의해 많

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부도덕한 미국의 무역정책

“태국은 세계 항흡연운동 대열의 우리 친구들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았습니다”라고 태국 항흡연운동 책임자인 프라킷 바테사토킷 박사는 말했다.

“우리는 담배기업들이 새로운 흡연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행하는 시장공략과 무한정의 광고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행동들을 취하고 있는 미국이 태국정부에 대해서는 똑같은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것이 매우 비양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프라킷 박사가 말했다.

“이는 논리적으로는 물론 도덕적으로도 앞뒤가 안맞는 일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저항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상표’를 자유로이 거래하기 위해 무역조치를 동원하여 위협을 받게 될 또다른 많은 경우들이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우리가 “생명을 댓가로 한 무역”운동을 환영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다국적 담배기업의 공략목표가 되고 있는 나라들도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정부가 자국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흡연을 중지시키고 비흡연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정책들을 시행하는 일에 온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卍